

바르게 배우는 교회·행하는 교회·전하는 바로 그 교회

제42권 18호

2026.5.3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살다 보면 많이 보이지 않는 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고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근심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곧 흠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외롭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질병과 실패와 배신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주님을 믿는 자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듯,
믿음으로 견디는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로 바뀝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	다 같 이
경배찬송	1장	다 같 이
성서교육	58번 시133편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86장	다 같 이
기 도	-----	1부 이홍룡집사 2부 송춘자권사 3부 김일남장로
성경봉독	예배소서2:20-22	인 도 자
찬 양	십자가로 가까이	성 가 대
설 교	함께 지어 가는 교회	박근상목사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208장	다 같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같 이
헌금기도	-----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이
축복기도	-----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소서2:21-22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천영순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말씀의 검(1) 엽6:17
 찬송/ 200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룻기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 교회소식 ■ ■

1. 매일 룻기를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주보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31)자료가 나갑니다.
3. 삼일예배에 "말씀의 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 금(8일) 중보기도회와 이슬비전도대 사역이 있습니다.
5. 중보기도실사역이 계속됩니다.
 개인 기도제목은 2.3층에 있는 기도카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은 "어린이와 아버지 주일"입니다.
7. 다음 주일(10일) 온세대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일 예배시간 변경안내

- 1부 오전8시
- 2부 오전9시 30분 (1층 교육관)
- 3부 오전11시

■ 유.초등.영유아부 예배시간 변경안내 - 오전 11시(1층 교육관)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장옥 박현규 2층 고지영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이홍룡 송용사 김일남	박현규/범사감사
다음주	1층 이길연 김실근 2층 고지영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오종화 이효성 김천연	박지석 박지인/자녀감사

청소담당: 2,3층 이번주(05,08) 01구역(천영순)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5,15) 02구역(이미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유초등부와 같이 예배해요.	활동 1.5월 암송 말씀은 시128편 1절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송치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10장 13절 제 목 -흠뻑 아이스크림	1.5월 암송 말씀은 시 128편 1절입니다. 2.매일 성경큐티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기 3.토요일 오후 2시 전도후 3시 새소식반 합니다. 4.어린이날 선물 받아주세요.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월초찬양기도회	1.5/10(주) 예배는 온세대연합예배입니다. (중고등부 인도찬양입니다) 2.5월 성경읽기는 레위기,암송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3.5월 예배인도는 백가는 자매,ppt 박혜진자매,5/17(주) 대표기도는 서예성 형제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김금모 형제 기도자 -조수아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다모데후서 1:5 제 목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	1.5/9(토) 10시 교회 봉사, 11시 말씀읽기,나눔, 기도회합니다. 2.5/10(주) 예배는 온세대연합예배입니다. 3.5/17(주)대표기도 한현구 형제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9시 30 3부 오전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영유아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인생 질문에 대한 답변(7)

죄책감은 어떻게 극복되는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자유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품고 살아간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말하고 일상을 이어가지만, 혼자 있을 때 문득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너는 정말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네가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면의 물음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고자질하는 심장』은 바로 이 죄책감의 실체를 섬뜩하게 보여준다. 주인공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감춘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 범죄를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시신을 숨긴 곳 근처에서만 들리던 소리가 나중에는 어디를 가든 따라다닌다. 결국 그는 깨닫는다. 그 소리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죄를 감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심장이 내는 소리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보여준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다. 세상은 지나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외면했는지, 어디에서 비겁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그래서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며,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 보통 사람은 두 가지 길을 찾는다. 하나는 앞으로 더 선하게 사는 것이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 애쓴다. 또 하나는 보상하는 것이다. 잘못된 만큼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불교와 기독교의 길은 달라진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과 죄책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선행을 쌓는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분명 이것은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준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는 죄책감을 줄이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책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바라본다. 인간이 단지 조금 부족하거나 훈련이 덜 된 존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존재라고 본다. 그래서 인

간의 노력만으로는 죄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아무리 보상하려 해도, 인간은 끝내 “이제 충분하다”는 확신에 도달하기 어렵다. 죄책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죄와 수치와 정죄는 그리스도께 맡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는 뜻이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지는 않음지 모르지만 성적, 학벌, 직장, 연봉, 성과, 외모, 효율성, 생산성으로 평가를 받는다. 끊임없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은 가치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보기보다 성과로 판단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가치해졌다고 느낀다.

철학자 한병철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사회 속에 살고 있다. 누가 강제로 채찍질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증명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다 지치고 소진되고 무너진다. 죄책감은 이제 단순히 “내가 나쁜 일을 했다”는 감정만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열패감과 결합되어 우리를 짓누른다. 바로 이때 기독교 복음은 세상과 전혀 다른 선언을 한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정죄의 문서를 제거하셨다. 빛을 갈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 모든 빛을 대신 갹아주고, 더 이상 빛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복음은 인간에게 자유의 길을 제시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책감의 해결은 망각이나 자기합리화가 아니다.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복음을 확신하고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는 지친 사람이 와서 숨 쉴 수 있는 곳,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용서의 복음을 듣는 곳이다. 세상이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때, 교회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해야 하는 곳이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이다. 죄책감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보다 큰 은혜, 실패보다 큰 사랑, 죄보다 깊은 용서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죄책감 앞에서 제시하는 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을 짊어지고 무너져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나눔식 소그룹 룯기 3:1~18(5월 6일 본문)

믿음의 행동,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 찬양하기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 545)

Focus :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룯기 3:1~18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기업 무를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가문의 구성원 중 곤경에 처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대신 책임을 지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기업무를 자는 친족이 가난해 땅을 판 경우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되돌려주고(레 25:25), 친족의 대를 잇도록 책임지는(13절)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룯기에서는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고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관찰과 묵상

1. 나오미가 룯에게 제안한 일은 무엇이며, 룯은 어떻게 했나요?(3~5절)

2. 룯의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보아스는 룯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요?(10~13절)

적용과 나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순종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 다지기

삶에 낙망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현실에서 밀려오는 암울함이 시야를 가려 어둠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룯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낙망과 좌절의 벽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그분의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주십니다. 겸손히 순종과 성실로 채워 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채워 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외로움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고립에 처한 이들에게 정서적, 영적, 실질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기도합시다.

2. 우루과이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땅의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거나 삶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뤄져
리 기다려 - 하루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흠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시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렘나무)